

## 한국 공공신학의 실천과제로서의 문화변혁 - 세속화 이론과 기독교국가의 이념을 넘어서

성 석 환 (안양대학교 교수)

- I. 세속화 이론과 공공신학의 의의
- II. 공공신학과 타자와의 연대
- III. 한국적 공공신학의 실천으로서의 문화변혁
- IV. 한국적 공공신학의 문화변혁적 과제

---

• **ABSTRACT** •

---

Theory of secularization has presupposed that religion would be privatized in modern world. Yet since the late of 20th century, religions have sought to find a new role in the public arena in different ways from the established one. As a result of it, people realized the importance of religious activities to shape meanings of their social life. In this sense, recently increasing interest in the public theology has a lot of social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Public theology tries to restore the public role of Christianity which has been shrunk in modern times. To do so, two things have to be considered; First, it should go beyond the ideal of Christendom in this pluralistic society. Second, especially in Korean situation, public theology has to be practiced in corporation with a lot of civil cultural movements, because those have played a great role to make progress with democracy in Korean society. So public theology in Korea has to be practiced culturally to create the alternative image and narrative derived from the Christian tradition and values.

**Key Words:** public theology, secularization, Christendom, culture, transformation, religious practice, pluralism

---

## I. 세속화 이론과 공공신학의 의의

최근 공공신학을 주도하는 학자들은 신학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근대 이후 위축된 교회의 공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급격하게 진행된 세속화, 다원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논의가 자칫 공공 영역에서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아 오려는 것이라면, 오히려 신학의 사적 측면만을 강화하게 되리라는 우려도 있다.<sup>1)</sup>

공공신학의 문제제기가 신학의 공적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고 신학 본연의 공공성을 실천하려는 것이라면, 필자는 두 가지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근대 사회학의 세속화 이론이 종교의 필연적 위축을 예측해왔는데, 오늘날 새로운 종교의 부흥 현상에 대해 신학적으로 해명하고 공공신학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공공신학이 기독교의 공적 주도권을 확보하여 기독교국가(Christendom)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설득하려면 다문화주의에 대해 신학적으로 응답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구체적인 실천의 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다원화가 특히 문화 영역에서 두드러졌다고 보는데, 현재 한국의 공공신학적 논의

---

1) 애리조나 주립대(Arizona State University)의 레넬 캐디(Lenell E. Cady)는 “공공 영역으로부터 종교적 가치와 신념들의 의도된 퇴거에 대한 불만스러움이 공적 정책에 대한 종교의 역할과 시민 종교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도록 많은 토론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신학이 학문적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 상황에서 공적 담론과 논쟁에 참여하려는 신학자들의 반작용인 측면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공신학이 자칫 공공 영역에서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다. Lenell E. Cady, *H. Richard Niebuhr and the task of a public theology*, *Anglican Theological Review*, Vol. 72, no. 4, 1990, 379.

는 문화적 영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적 공공신학의 논의와 실천이 대중문화운동의 담론과 실천의 장에서 구체화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서구 신학으로부터 수입된 공공신학이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서 재해석된 공공신학의 실천이 구체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2007년을 공공신학의 카이로스(Kairos)라고 부른 스토라(William Storrar)<sup>2)</sup>는 다원화된 세속적 공공 영역에서 교회와 신학자가 민주주의 사회의 변화에 여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 “다원주의적 공공 영역에서 자신의 의견을 다른 많은 의견 중 하나로 여기고 기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의 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sup>3)</sup>고 말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공신학은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정당하게 들어낼 방법을 발견하고자 한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 시민단체들과 교회가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신학의 전 지구적 연대와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영역에서 특정 종교의 입장을 개선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인 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근대는 종교를 개인적 선호와 신념에 관련된 사적 영역으로 격리시켰었다. 20세기 내내 진전된 근대 세계

---

2) 현재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연구센터(the Center of Theological Inquiry)’의 책임자로 ‘공공신학 지구네트워크(Global Network for Public Theology)’와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의 창간을 주도했다. 그는 창간호에서 2007년을 공공신학의 카이로스로 표현했다. 그는 에딘버러 대학의 ‘신학과 공공문제 연구소(Centre for Theology and Public Issues)’를 창설한 에큐메니컬 신학자 포레스터(Duncan Forrester)의 신학을 계승하면서 공공신학의 전 지구적 연대를 프린스턴 신학교의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와 함께 주도하고 있다.

3) William Storrar, 2007: *A kairos moment for public the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 2007, 16.

의 다원화가 이러한 종교의 사사화(privatization)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에 대부분의 종교사회학자들이 동의했다.

종교를 사회현상학적 입장에서 다루는 피터 버거(Peter Burger)는 세속화를 “사회와 문화의 제 영역이 종교적인 제도와 상징체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sup>4)</sup>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다원주의를 가속시키고, 종교는 시장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른바 “설득력 구조(plausibility structure)”를 통해 경쟁해야 할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이 20세기 근대 사회학의 대체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들이 다원주의 상황의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스나우(R. Wuthnow)의 경우 버거와 같이 사회제도 혹은 질서로서의 종교가 경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다원주의 상황은 한 사회에서 경쟁과 지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하여 다양한 종교적 지향들이 총체적으로 생명력을 얻도록 기여하기도 한다.”<sup>5)</sup>고 함으로써 종교들이 시장에 적응할 경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고 해도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역할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할 수동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 결과 그들의 종교적 지향은 더욱 개인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종교 자체는 시장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그 시장의 소비자들은

---

4) Peter Burger, *The Social reality of religion*, 한완상 역, 『종교와 사회』(종로서적, 1981), 125. 버거는 베버(Max Weber)나 뒤르켐(Emil Durkheim)과 마찬가지로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종교의 역할을 인정한다. 종교는 일종의 문화로서 사회적 제도이며, 여러 제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실재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사회는 인간의 산물이고 동시에 인간은 사회의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으로부터 연유한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원주의와 관련해서도 교회 내부의 요인보다는 사회문화적 변동 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 것이다.

5) Robert Wuthnow, *Christia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107.

하나의 종교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적 취향을 종교 또는 여러 제도로부터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sup>6)</sup> 예컨대 20세기 후반부터 불어 닥친 영성운동의 발흥을 주목하고, 종교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평가하려는 입장들이 있는데, 『영성, 음악, 여성』(Fire from heaven, 1995)에서 쇠락한 종교가 새로운 영성의 출현으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흥분한 하비 콕스(Harvey Cox)는 이제 영성이 아니라 세속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본다. 그는 성령운동의 새로운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 삶에 대해 단지 세속적인 설명이나 종교적 교리와 기관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설명이 완전하지 못한 이 시대에, 성령운동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용암의 분출은 우리들 모두에게 잠재해 있는 심원한 종교적 본능을 일깨워 주었다. 성령운동은…… 인간의 광범위하고 오래된 종교적 본성의 모든 형태를 망라한 종교사의 한 부분이다.<sup>7)</sup>

그러나 이처럼 20세기 후반부터 확연해진 영성운동과 오순절 교회의 성장세가 오히려 신앙의 개인화, 내면화의 특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신학의 본질적 공공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몰트만(J. Moltmann)도 비록 강력한 성령론에 근거해 입장을 전개하지만, 그는 이 시대의 영성운동이 차츰 근본주의와 결탁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 이는 하비 콕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몰트만의 ‘생명의 영’은 그에게서 ‘해방의 영’으로 반복되는데, 그는 성령운동이 근본주의가 아니라 체험주의에 연관되어야 하며 임박한 재림보다는 현실의 변혁을 지향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성령운동의 근본주의적 개인화를 경계한다.<sup>8)</sup>

6) 앞의 책, 107. 우스나우는 이렇게 개인화되는 특성을 가리켜 ‘개인화된 절충주의(personalized eclecticism)’라고 부른다.

7) Harvey Cox, *Fire from heaven*, 유지황 역, 『영성, 음악, 여성』(동연, 1996), 132.

8) 앞의 책, 411~39.

성령운동과 타종교들의 영성운동을 통한 종교의 새로운 발흥 현상이, 세속화된 사회의 종교는 공적 영역에서 위축될 것이라는 사회학적 예측을 무력화시키는 사태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이 개인화된 종교의 사사화를 더욱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 스스로 내부의 성찰을 통해 변혁적 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공공신학은 분명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것은 신학의 본성 자체가 공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예컨대, 몰트만(J. Moltmann)은 *God for a secular society*(1999)에서 “오늘날 혹은 미래의 근대 세계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나라의 과제를 인식하려면 근대의 탄생 때부터 내재된 신학적 생명력과 약점을 알아야 한다.”<sup>9)</sup>고 말한다. 즉 생태계 문제, 사회적 정의와 평등 등 근대 세계의 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대성의 도구적 합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나라를 실천하는 신학의 공적인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sup>10)</sup>

이처럼 공공신학은 신학의 본성적 공공성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포레스터(Duncan Forrester)는 “신학이나 종교의 영향력이 다만 사적인 삶(private life)이나 개인적인 주관성(subjectivity)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당연시하던 당대의 개념들을 거부했다.”<sup>11)</sup>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는 특히 지구화 상황이 전 지구적인 공공신학의 연대를 절박하게 요청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이라고 보는데, 그는 특정 공동체의 경험과 고백이 우선적으로 지지자들의 공적인 삶의 규범으로서 작동하는

9) J. Moltmann,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5.

10) William F. Storrar and Andrew R. Morton, *introduction,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T&T Clark, 2004), 1.

11) Andrew R. Morton, Duncan Forrester: *A public theologian,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T&T Clark, 2004), 25.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공동체나 사적인 연대 안에 머물기보다는 시민 사회의 복합적 제도들과 다른 사람들의 신념들을 통해 작동되어 공적 영역을 형성해야 한다.”<sup>12)</sup>고 말한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신학의 지역화를 주도하는 그루치(J. W. de Gruchy)는 공공신학의 공공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증언(witness)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이지만 공공신학은 단지 교회의 공적인 선언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문제 삼는 ‘신학 하기(doing theology)’의 한 양식이다. 종종 교회의 공적 선언들이 본성상 사회학적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지만, 공적 신학은 기독교 전통 안에 깊이 드리워진 신념과 헌신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그렇게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sup>13)</sup>

이와 같이 신학은 본질상 공적인 것이므로, 세속화로 인한 종교의 시장상황이나 다원주의적 다원화 시대는 오히려 신학의 진정성을 실천할 주요한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비드 마틴(David Martin)의 경우 이러한 상황은 사회학적으로 ‘근본적인 변혁적 상황(fundamental transformation)’<sup>14)</sup>이다.

12) Max L. Stackhouse, *Civil religion, political theology and public theology*, *Political Theology*, no. 3, July 2004, 291.

13) J. W. de Gruchy, *Public theology as christian witness: exploring the gen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 2007, 40.

14) *A general theory of secularisation*(Oxford: Blackwell, 1978)의 저자인 마틴은 *Towards a revised theory of secularisation*(Aldershot: Ashgate, 2005)에서 근대 세속화 이론을 수정하고 오늘날의 상황이 세속화를 바라보는 종교사회학에게는 근본적인 변혁적 상황이라고 본다. 그와 함께 비슷한 주장을 하는 카사노바(Jose Casanova)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세속화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공적 종교의 종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사회적 의미를 상실한 것이 아니고, 종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신학은 세속화로 인해 위축된 기독교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주도권 다툼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개인(private)-공공(public)’, ‘교회(church)-사회(society)’를 이원화하는 근대적 ‘주-객관 도식’의 틀에서 벗어나 신학의 본질적 공공성을 공적 영역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속화에 포섭된 종교사회학의 협소한 현상학적 이해를 교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고 재해석하는 종교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신학이 특정 종교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근본주의적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는 신학의 본질적 실천임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공공신학이 결코 승리주의나 정복주의와 같은 기독교국가(Christendom)의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II. 공공신학과 타자와의 연대

지구화는 시민사회를 지구적으로 확장하였는데, 지역적으로는 단위 문화공동체 안에 다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사회가 더 이상 근대적 경계 안에 머물지 않게 하였다. 지구적 시민사회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초국적 영역, 즉 초국적 정부가 부재된 영역과 관계된다. 지구화를 공공신학이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중요한 사태로 인식하는 스택하우스는 각 지역의 종교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각 지역의 전통문화나 관습을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신학의 지구적 실천이 어렵다고 본다.<sup>15)</sup> 따라서 현 상황은 이미 전 지구적으로

---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치를 제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참고, James Sweeney, C. P., *Revising secularization theory*, Graham Ward and Michael Hoelzl eds., *The new visibility of religion: studies in religion and cultural hermeneutics* (London&New York: continuum, 2008), 15~16.

퍼져 있는 주류 종교들이 서로 연대하고 또 종교적 헌신자가 동시에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운신하기에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동시에 교회가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면 교회 메시지의 보편성을 약화시키고 교회의 이익만을 대변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패트릭 리오단(Patrick Riordan)은 교회가 시민사회와 국가 혹은 정치 사이에서 공공선을 높이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6)</sup>

피어슨(Clive Pearson)에 의하면,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공신학의 공공성이란 기독교 신학의 공적 연관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단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관의 문제를 다루며, 사상(ideas)의 시장에서 다른 많은 목소리들 중 하나로써 개종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sup>17)</sup> 즉 공공신학이 사회자본(social capital)<sup>18)</sup>으로써 시민사

15) Max L. Stackhouse, 이상훈 역,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세계대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북코리아, 2008), 34~37.

16) Patrick Riordan, *Five ways of relating religion and politics*, Graham Ward and Michael Hoelzl eds., *The New Visibility of Religion: studies in religion and cultural hermeneutics* (London&New York: continuum, 2008), 37~38.

17) Clive Pearson, What is public theology?, [http://www.csu.edu.au/faculty/arts/theology/pact/documents/What\\_is\\_Public\\_Theology.pdf](http://www.csu.edu.au/faculty/arts/theology/pact/documents/What_is_Public_Theology.pdf) 참고. 피어슨은 찰스 스튜어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 부설 ‘공공신학전략연구소(Public and Contextual Theology Strategic Research Centre)’의 부원장이다.

18) 사이더(Ronald J. Sider)와 언러(Heidi Rolland Unruh)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건강한 민주주의와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증진하는데 자발적 결사체들과 교회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용하다고 본다. 콜맨(James Coleman)의 경우 사회 자본을 개인적인 혹은 협력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회적 구조 속에 배어있는 자원으로 정의한다. 또 개인의 사회적 참여, 시민행동, 접근 가능한 자원들, 사회적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무튼 공공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를 사회 자본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시도이다. 사회 자본은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생산하고 재해석하여 제도와 체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의 종교적 생활이 공공 영역의 의미생산과 상징체계들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성찰이 우세해지면서 사회 자본으로서의 종교의 역할은 세삼 증대해지기 시작했다. Heidi Rolland Unruh and Ronald J. Sider, *Saving souls, saving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18~24 참고.

회의 공공선을 도모하고, 지구적 시민사회의 형성에 기여하려면 내부적으로 근본주의적 열광을 극복해야 할뿐만 아니라 기독교국가의 승리주의 이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즉 근대의 이원론과 인본주의적 뿌리를 공유한 서구 교회는 타자를 자기동일성으로 환원시켜 발생하는 소외의 문제를 기독교국가 이상에 근거한 정보주의나 승리주의 선교방식을 통해 더욱 강화시켰고,<sup>19)</sup> 인간중심주의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환경파괴를 조장했다는 의심<sup>20)</sup>을 없애지 못한다면 공공신학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세속화 이론이 오류이며, 기독교가 여전히 공공 영역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득하려면, 기독교 외부의 타자들과 어떻게 소통, 연대,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19) 인간과 자연, 시간과 영원, 이성과 물질, 관념(idea)과 역사, 그리고 교회와 세상 등의 대립구조로 세계를 이해하는 근대의 이원론은 중세의 세계관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었다. 즉 근대는 양 축의 대립에서 또 다른 한 쪽을 선택한 결과였으므로, 결국 이전의 이원론적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건튼에 의하면, 다른 점은 이전에는 대립하는 양 자가 동일한 권위를 가진 병행 영역으로서 공존했다면, 근대에 와서는 서로가 피차 상대를 부정하려 했다는 것이다. 중세에 형성된 이원론은 공히 플라톤(Platon)의 '가치의 위계(hierarchy of values)'나 고대 기독교의 적대자였던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았는데, 계몽주의 이후 형성된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판단이 결국에는 주관주의(subjectivism)의 경향에 경도되면서 중세의 근본적인 이원론적 구도를 차단하지는 못했다. Colin Gunton, *Karl Barth and the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 towards a theology after Christendom*, John Thompson ed., *Theology beyond Christendom*,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1986), 289 참고.

20) 20세기 후반부터 교회는 인간의 자연파괴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바로 기독교 신학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파괴하도록 허용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도전은 기독교 신학이 자연을 교회와 분리된 외부 세계로 인식하여 근대주의의 이원론적 시각을 토대로 접근했다는 문제제기였다. 초대 교회와 중세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인간, 그리고 세상을 하나의 질서 안에서 조화로운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주로 아퀴나스(Thomas Aquinas)에 의해 정립된 이 신학 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철학과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를 수용하여 세계의 이원론적 위계질서를 인정했다. 즉 영과 물질, 남과 여, 인간과 세상의 이분법적 구분을 허용하게 된 것이었다.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91), 26~27 참고.

캐디(Linell E. Cady)는 공공신학의 방향성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이 문제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는 공공신학이 스택하우스나 트레이시(Tracy)처럼 공공 영역의 의미 체계에 규범적 역할이 되도록 하는 방식, 즉 신학의 공공성 규명 자체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공공신학의 성찰이 사적이고(private) 편협한(parochial)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고, 또 벨라(Bellah)나 마티(Marty)와 같이 시민사회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만 집중한다면 정작 기독교적 정체성에 근거한 메시지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본다.<sup>21)</sup> 그러므로 모든 공공적 사안들을 기독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기독교국가의 유혹에서 벗어나 기독교적 정체성을 회색시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의견들과 공존하여 함께 협력할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공공신학이 자기 반성적이어야 하며, 역사적 맥락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들, 다른 접근방식들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sup>22)</sup>고 주장하는 그루시의 의견은 중요하다. 즉 공공신학은 교회 혹은 기독교 외부 세계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신학이 지향하는 ‘공공’의 영역이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 기독교 외부의 대중사회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공공신학은 기독교의 공동체신학이 아니다. 공공신학은 기독교 내부의 ‘공동의(common)’ 혹은 ‘공유된(shared)’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가치와 신념들이 함께 거하는 일종의 아고라(agora) 광장에서 신학적 실천을 도모하는 것이다.<sup>23)</sup> 공공신학의 이상은 획일적인 정치적, 문

21) Linell E. Cady, *A model for a public theology*, *Harvard Theological Review*, 80, no. 2, Ap. 1987, 198.

22) J. W. de Gruchy, 앞의 글, 41.

23) 모튼(Andrew R. Morton)은 이것을 포럼(forum)이라고 부른다. 포럼은 같은 생각과 전통을 가진 공동체 내부의 논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전통과 신념을 가진 이들이 공동의 문제와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서 조율하는 곳이다. 포럼은 열린 공간이다. 참고, Andrew R. Morton, *Duncan Forrester: a public theologian,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T&T Clark, 2004), 29.

화적 통일을 위해 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기독교국가나 근대의 이원론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그것이다.<sup>24)</sup> 이는 종교, 인종, 지역, 나이, 성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나라’의 일원임을 공표하고 초청하는 것이다. 부리티(Joanildo Burity)는 교회가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자유로운 삶의 틀을 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다른 제도들, 실천들과의 다원적이고 상호적인 참여적 관계를 확증하는 것”<sup>25)</sup>이라고 주장한다. 스토라(W. Storrar)도 “타 종교 전통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 전통을 지구적 넓이로 확장하고 에큐메니컬한 성취를 이루는 것만이 우리 시대의 공적 문제들에 신실한 신학적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sup>26)</sup>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공공신학은 시민사회나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의 공공성을 배타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 외부의 개인, 제도, 문화와 공동의 선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실천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

---

24) 크레이 카터(Craig Carter)는 리처드 니버의 문화관을 비판하면서, 니버와 같은 미국 신학자들이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강조해 온 것은 중세의 기독교국가의 이상을 계승한 19세기 문화기독교를 추종하는 것이고 이는 기독교국가 건설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한다. 참고, Craig A. Carter, *Rethinking 'Christ and Culture': a post-christendom perspective*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6), 57~60.

25) Joanildo Burity, *The framework(s) of society revisited, Julio de Santa Ana et al., Beyond ddealism: a way ahead for ecumenical social ethics* (Grand Rapids: Eerdmans, 2004), 141.

26) William Storrar, 앞의 글, 24~25.

### III. 한국적 공공신학의 실천으로서의 문화변혁

한국의 공공신학 논의는 복음주의 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윤리신학자들의 모임은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한국공공신학연구소」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신학적 논의에서 그치고 구체적인 실천의 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의 공공신학은 자칫 위축된 기독교의 옛 영화를 회복하고 기독교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일종의 '주류 콤플렉스'로 비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그 동안 공공 영역에서 보여준 주류 한국교회의 사회적 실천들이 다른 사회 제도들과 마찰을 빚거나 일방적이었으며, 특히 개종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선교전략은 외부 세력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공신학은 현재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필자는 한국의 공공 영역의 다원화 현상이 민주화 이후 대중문화의 담론과 실천들이 확대되면서 공식화되었다는 인식을 토대로, 또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의 갈등과 마찰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던 영역이 바로 시민사회의 문화운동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한국적 공공신학의 실천이 특히 문화 영역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것처럼 공공신학이 세속화 이론을 극복하고 다원주의 시대에 정복주의나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열린 담론의 장에 참여하여 공공의 선을 위해 실천하려면, 공공신학의 주체들은 신학자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적 삶의 주인공들로부터 나와야 한다. 아르데(Andries van Aarde)는 공공신학의 공공성을 논하면서 오늘날의 “공공신학은 영화, 노래, 시, 소설, 예술, 건축, 시위, 의복, 신문과 잡지의 기사들 속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출현한다.”<sup>27)</sup>고 말한다. 즉 오늘날의 공공신학의 주체는 대학의 신학자가 아니라 시민사회

의 아고라에서 문화적 삶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해내는 공중들 (the publics)이라는 것이다. 사실 다원주의 상황에서의 문화적 질문이란 “서로 다른 사회적 강제 규범과 기준들에 따라 움직이는 세속적인 문화 해석의 틀 속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 가려는 노력의 과정 중에 조우하게 되는 질문”<sup>28)</sup>이다. 따라서 공공신학의 실천은 다양한 문화해석의 틀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시민사회 문화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0년대 민주화 세력은 문화를 선전의 도구로 인식한 반면, 90년대는 문화 자체의 새로운 역동성을 발견함으로써 사회변혁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문화연대」의 창립을 주도한 심광현은 “새로운 문화운동이 ‘문화적 공공 영역화’라는 화두를 제기하면서, 기존의 문화적 공공영역의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는 일”과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 뿌리를 두는 새로운 문화 활동을 창출하면서 이를 통해 참여민주주의적인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공공영역을 창출해가야 할 과제”<sup>29)</sup>를 말아야 했다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서 시민대중의 의사소통과 문화적 표현이 활발하게 개진되도록 자극함으로써 대중 스스로 문화적 주체가 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했던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와 대중문화 이론들은 “타자성과 차이를 긍정하고 과거의 문화적 대화에서는 배제되었던 주변적이고 저항적인 소수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다문화주의”<sup>30)</sup>를 표방했다.

27) Andries van Aarde, *What is “theology” in “public theology” and what is “public” about “public theology”?*, *Hervornde Theological Studies*, 64(3), 2008, 1216.

28) Kathryn Tanner, *Theories of culture: a New agenda for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157.

29) 심광현, 「문화사회를 향한 새로운 문화운동의 과제」, 『문화사회와 문화정치』(문화과학사, 2003), 182.

그런데 한국사회의 이러한 ‘문화적 공공 영역’의 확대에 대한 한국교회  
의 대응은 초기에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 시민의 공공 영역이  
확장되던 것과는 달리 주류 교회는 신자의 신앙생활의 공공성보다 공동  
체 내부의 연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신앙의 개인화, 사사회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의 시기에  
그것을 조정할 가치관의 부재를 지적하고, 가치관이 부재했다고 지적하  
면서, “(한국사회의) 종교는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변화시키는 세력이  
라기보다는 온존시키는 세력”<sup>31)</sup>이라고 비판하여 종교의 공적 역할을 촉  
구하는 정수복의 주장을 주목해야 한다.

수적 감소, 대 사회적 공신력 저하 등의 선교적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90년대 후반부터 대중문화의 형식적 수용을 통해 사회문화적 변  
화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 수용은 시민사  
회의 문화적 담론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까  
지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제 공공신학은 공공 영역의 담론과 실천에 참여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실천은 기독교가 가진 고유한 해석 틀과 상상력을 문화적으  
로 표현하고, 유포하고, 보급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동의 유익을 증진하  
는 일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설득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상징,  
언어, 해석 틀 등은 일종의 사회적 문화자본으로 독특한 사회적 의미와  
관계를 형성한다.<sup>32)</sup> 신국원은 그 동안 한국교회가 보여준 공공 영역에서  
의 문화적 태도를 반성하면서 하나님나라의 핵심 개념으로 변혁과 살롬  
을 부각시키고, “그리스도인의 문화 변혁 운동은 바로 이 큰 그림인 살롬  
의 문화를 바라보는 비전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sup>33)</sup>고 주장한다. 임성빈

30) Douglas Kellner, *Media culture*, 김수정, 정중희 역, 『미디어 문화』(새물결, 1997), 52.

31)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생각의 나무, 2007), 543.

32) Heidi Rolland Unruh and Ronald J. 앞의 책, 222.



도 기독교의 문화적 소명에 대해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와 ‘하나님 나라’라는 신학적 개념에 의지해서 해명한다.<sup>34)</sup>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공공신학을 통해 실천해야 할 분명한 문화적 소명은 하나님나라의 원리에 어긋나는 사태들을 변혁하는 것이다.

우스나우(R. Wuthnow)에게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의 예언자적 비평 기능의 수행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입장이 절대화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이라고 말한다.<sup>35)</sup> 그에겐 이것이 공공신학의 일차적 임무이다. 공공신학의 변혁적 역할은 강제력과 폭력을 통해 타자를 기독교와의 동일성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독교 고유의 상상력과 내러티브를 타자의 그것과 소통시키는 것이다. 가톨릭 공공신학자인 홀렌바흐(David Hollenbach)는 기독교 고유의 “상상력을 통해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공적 삶의 영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sup>36)</sup>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공공 영역이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교회의 공공신학의 실천은 그 무엇보다도 현실의 모순을 변혁하는 기독교적 상상력과 내러티브를 보급하여 공공 영역의 해석 틀을 하나님나라의 그것으로 변혁하는 것이다.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는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주차갈등, 목회자 납세논란, 아시아적 가치관 등의 문제를 공공신학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

33) 신국원,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ivp, 2004), 342.

34) 임성빈, 「새 천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과제로서의 문화선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사회부 편, 『21세기의 도전과 문화선교』(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19~24.

35) Robert Wuthnow, *Christianity and civil society: the contemporary debate*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97.

36) David Hollenbach, *The global face of public faith*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65

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공신학이 한국사회의 문화적 공공 영역의 확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도시공동체 형성, 도시미학, 공공디자인, 공공예술, 지역문화축제 등은 모두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사회적 상상력이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인데, 이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해석 능력을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교회의 공공신학이 이러한 문화적 실천에 주목하고 정의, 인권, 평화 등 거대담론들뿐만 아니라 공중의 사사로운 삶에 공공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들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신학은 신학의 미학적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다. 그러자면 영화감독, 예술가, 작곡가, 가수, 패션 디자이너, 건축가, 사회운동가 등 각계에서 문화적 표현과 실천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고 소통하여 그들의 작업에 신학적 공공성을 부여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 IV. 한국적 공공신학의 문화변혁적 과제

한국적 공공신학의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그러나 신학의 공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 동안 윤리신학의 주제였다. 또 한국에서도 토착화신학, 민중신학 등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된 일종의 사회윤리적 실천은 오랜 동안 에큐메니컬 진영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했다. 이제 복음주의 진영이 이러한 논의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공신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채수일은 최근 한 포럼에서 발표한 「경제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서 공공신학의 신학적 근거로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에큐메니컬 신학전통에서 공공신학은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공공신학 전통에서는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은 에큐메니컬 공적 신학의 한

계”<sup>37)</sup>가 있음을 지적했다.

사실 양 진영의 그러한 편차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려스러운 것은, 기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실천은 없이 그저 유행하는 외국 신학을 재빠르게 수입하여 그 논의에 동참하고 선점했다는 것에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공공신학 논의를 선점한 주체들이 민주화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대중문화담론과 시민사회의 문화적 영역의 공공성 확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참여는 기독교국가의 정복적 일방주의나 종교의 세속화 이론을 극복하고 기독교 고유의 창조적 상상력을 사회화함으로써 공동의 선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모처럼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공론이 모아지기 시작했으니, 공공 영역에서의 신학적 상상력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신학에 대한 신학계 공동의 비전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

37) 최수일, 「경제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2009 교회와 사회포럼 자료집, 29.

## 참고문헌

- 김근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임성빈. 「새 천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과제로서의 문화선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부 편, 『21세기의 도전과 문화선교』.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신국원.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ivp, 2004.
-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 나무, 2007.
- 심광현. 「문화사회를 향한 새로운 문화운동의 과제」, 『문화사회와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2003.
- 최수일. 「경제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편, 『2009 교회와 사회포럼 자료집』. 총회사회봉사부, 2000.
- Burger, Peter. *The social reality of religion*. 한완상 역.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1981.
- Cox, Harvey. *Fire from heaven*. 유지황 역. 『영성, 음악, 여성』. 동연, 1996.
- Kellner, Douglas. *Media Culture*. 김수정, 정중희 역. 『미디어 문화』. 새물결, 1997.
- Stackhouse, Max, L. 이상훈 역.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세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북코리아, 2008.
- Aarde, Andres van. *What is “theology” in “public theology” and what is “public” about “public theology”?*, *Hervornde Theological Studies* 64(3), 2008.
- Burity, Joanildo. *The framework(s) of society revisited*, Julio de Santa Ana et al., *Beyond Idealism: a way ahead for ecumenical social ethics*. Grand Rapids: Eerdmans, 2004.
- Cady, Linell E. *A model for a public theology*, *Harvard Theological Review* 80(2), 1987.
- \_\_\_\_\_. *H. Richard Niebuhr and the task of a public theology*, *Anglican Theological Review* 72(4), 1990.
- Carter, Craig A. *Rethinking ‘Christ and Culture’: a post-Christendom perspective*.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6.
- Gruchy, J. W. de. *Public theology as christian witness: exploring the gen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1), 2007.
- Gunton, Colin. *Karl Barth and the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 towards a theology after Christendom*, John Thompson ed., *Theology beyond Christendom*.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1986.
- Hollenbach, David. *The Global face of public faith*. Washington, D.C.: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 Moltmann, Jurgen.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 Morton, Andrew R. *Duncan Forrester: a public theologian*, William F. Storrar and Andrew R. Morton eds.,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T&T Clark, 2004.
- Pearson, Clive. *What is public theology?*, [http://www.csu.edu.au/faculty/arts/theology/pact/documents/What\\_is\\_Public\\_Theology.pdf](http://www.csu.edu.au/faculty/arts/theology/pact/documents/What_is_Public_Theology.pdf)
- Riordan, Patrick. *Five ways of relating religion and politics*, Graham Ward and Michael Hoelzl eds., *The New Visibility of Religion: studies in religion and cultural hermeneutics*. London&New York: continuum, 2008.
- Stackhouse, Max L. *Civil religion, political theology and public theology*, *Political Theology*, no. 3, July 2004
- Storrar, William F. 2007: *A kairos moment for public the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1), 2007.
- Storrar, William F. and Andrew R. Morton, *Introduction*, William F. Storrar and Andrew R. Morton eds.,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T&T Clark, 2004.
- Sweeney, C. P., James. *Revising secularization theory*, Graham Ward and Michael Hoelzl eds., *The New Visibility of Religion: studies in religion and cultural hermeneutics*. London&New York: continuum, 2008.
- Tanner, Kathryn. *Theories of culture: a new agenda for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Unruh, Heidi Rolland and Ronald J. Sider. *Saving souls, saving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Wuthnow, Robert. *Christia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Christianity and civil society: the contemporary debate*.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논문접수일: 2009. 4. 28.

심사개시일: 2009. 5. 12.

게재확정일: 2009. 5. 20.